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미·중 전략회의, 위안화 절상 주요 의제에서 제외

- 중국과 미국은 26일 폐막된 제 2차 미·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.
 - 향후 양국은 에너지와 기후 변화 등에 대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인권 문제, 유엔평화 유지군 및 반 테러법 집행 등 두 나라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하기로 하는 등 총 26개 항목의 합의서를 도출함.
 - 아울러 양국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역 및 투자 보호주의 추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, 금융 분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두 나라 간 경제교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함.

- 관심을 모은 위안화 환율 인상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외부보다는 내부적 요인에 따라 환율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큰 진척 없이 마무리됨.
 - 후진타오 중국국가 주석은 개막식에서 자주성, 통제 및 지속 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온건하게 인민폐 환율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표명하는 등 환율정책 시 외부보다는 내부요인을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.
 - 이에 대해 미국은 예상과 달리 양측의 대립이 분명한 위안화 문제를 더 이상 의제로 삼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의견 충돌을 막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음.
 - 일각에서는 현재 남유럽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안화 같은 주요 통화의 환율안정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당분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환율인상 압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고 있음.

(북경주보, 상하이증권, 5/26)